

# 녹용시장 유통실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이 내용은 본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약신문」에 소개된 기사다. 양록농가에서는 녹용의 유통실태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각자 국산녹용의 홍보요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보약에서 빠져서는 안될 한약재가 있다면 단연 녹용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녹용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녹용 소비대국인 우리나라의 한약취급업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국산 녹용만을 선호, 국내 양록농가의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녹용을 들여오고 지불한 돈은 4천2백75만달러에 이른다.

녹용시장의 유통실태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외국산 녹용을 선호하는 한약취급업소가 많은지 등을 살펴봤다.

## 한국녹용시장 현황

국내 한약취급업소들의 기피로 국산 녹용판매는 부진하면서도 외국산 녹용의 수입량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최근엔 한국양록협회가 국산녹용 직판장을 개설하면서 국산 녹용의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직판장이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한곳 뿐이어서 전체 녹용소비량에 비하면 국산 녹용판매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 한약재인 수입 녹용의 소비증가는 한약재 부문의 무역역조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용 수입량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76년 1천8백kg에 불과하던 녹용 수입은 77년에 3천kg에서 78년엔 8천41kg으

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79년 1만1천2백kg에서 80년에는 1만9천5백74kg으로 증가했다.

이후 83년 2만5천6백64kg, 84년 2만4천13kg, 85년 1만9천8백27kg, 86년 2만2천6백kg으로 몇년간 수요가 감소했던 수입녹용은 87년에 4만8천4백kg으로 늘었고, 91년 8만2천7백94kg, 93년 16만5천5백81kg으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국산 녹용 생산량은 76년 5백82kg으로 자급률이 25%에 올랐을 뿐 이후 20%이내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같은 수치는 말 그대로 자급할 수 있는 물량일 뿐 실제 판매량은 아니다. 국산 녹용의 자급률은 86년과 90년에 각각 22.5%와 24.7%를 기록했고 이후엔 10%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1백분의1도 안되면서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녹용의 80%에 달하는 약 20만kg을 소비하는 녹용 소비대국(?)이 되고 말았다.

중국을 비롯 러시아,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녹용은 거의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자료에 따르면 95년 우리나라가 녹용을 수입해온 나라는 소련등 모두 8개국이며 녹각 수입까지 합하면 15개국에서 사슴 채취물을 수입했다.

녹용의 경우 생녹용 1만7천9백34kg과 건녹용 13만1천5백11kg등 14만9천4백45kg이 수입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2백75만9백90달러어치에 이른다.

여기에 녹각 84만3천51kg, 8백89만7천7백70달러를 합하면 녹용, 녹각 수입금액은 5천1백64만8천7백60달러에 달한다.

녹용 수입국을 살펴보면 단가는 낮으나 물량이 많은 뉴질랜드로부터 건·생녹용 포함 약 8만kg을 들여와 1천7백55만5천달러를 지불, 최대 녹용수입 국가임이 다시 확인됐고 중국 3만2천6백kg에 1천1백8만달러, 전소련 연방국가 2만3천9백kg에 9백96만8천달러였다.

이밖에도 캐나다 6천2백kg에 1백59만달러, 북한 4천2백kg에 1백37만달러, 미국 6천3백kg 87만달러, 오스트리아 32kg에 5천4백달러 순이다.

우리나라 녹용 시장은 이처럼 외국산 녹용이 90%이상(실제 한약업소를 통해 유통되는 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세계양육 현황

우리나라는 무엇때문에 국산 녹용을 외면하고, 귀한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외국산 녹용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외국산 녹용을 선호하는 한약관계자들은 『녹용은 추운 곳에서 그것도 야생의 조건에서 사슴이 자랄때 효과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야생사슴은 지극히 한정돼 있고 더구나 그런 국가는 야생동물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녹용 채취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이 약효가 좋다고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 녹용은 모두 합해도(95년 기준) 5만5천kg인 반면 기후조건이 우리나라보다 더운 뉴질랜드산은 7만6천kg(60%)이나 수입됐다.

추운지방의 녹용이 약효가 좋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한약업소의 50% 이상은 약효가 떨어지는 녹용을 국민들에게 복용시키는 셈이 되고 만다.

또한 전국에서 환자가 많이 몰리는 몇몇 한의원이나 한약방은 국내에 사슴목장을 운영,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용을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양록농가의 녹용을 애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추운지방에서 생

산된 녹용이 약효가 탁월하다」는 논리는 외국산 녹용을 선호하는 이유로선 설득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나 녹용수급을 전담하는 한약취급업소에서는 외국산 수입녹용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양질의 녹용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와 풍토, 먹이,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생리적 현상인 호르몬 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자란 사슴에서 채취한 천연상태의 신선한 국산녹용이어야 한다.

### ● 뉴질랜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녹용을 수출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목축업을 하기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나라다.

뉴질랜드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뉴질랜드의 양록업은 70년을 기점으로 사슴을 수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엔 독일과 일본 등지로 사슴고기를 수출했으나 우리나라 한약업자들이 녹용을 수입하면서 세계 최대의 녹용수출국으로 성장했다.

광활한 목초지에 사슴을 방목하는 것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사슴이 먹는 목초는 소나 양이 먹는 한두가지에 불과해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 양록업계의 주장이다.

품종은 녹용중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레드디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 중 국

사슴사육 환경이 우리나라 보다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슴에게 옥수수나 땅콩줄기 등을 먹이며 사육기술도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녹용 건조기술도 낙후돼 불량률이 높다는 것이 양록업계의 의견이다.

품종은 매화록(꽃사슴)과 일명 깔깔이(마록)가 주종이며 깔깔이는 러시아 원용에 이어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 ● 러시아

업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품종은 엘크의 일종인 마랄.

2냥 기준으로 상대가(규격화품) 15만원으로 표준공장도 가격이다.

수입량은 뉴질랜드, 중국에 이어 3번째이다.

### ● 기 타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도 소량 규모의 양록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던 알래스카산 녹용은 대부분 순록의 뿔로서 녹용의 주요성분인 「판토크린」과는 전혀 다른 「란타린」성분이 함유돼 있어 지난 92년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순록은 암수 모두 뿔이 나며 형태는 녹용이지만 한약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 ● 한 국

우리나라는 1773년 중국 길림성에서 야생 사슴을 포획해 기르게 된 것이 현대 양록의 시초로 알려지고 있다.

양록산업이 본격화된 것은 6.25 이후부터 74년까지 대만, 일본, 미국, 뉴질랜드 등지에서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등 1천7백여두를 수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 9천1백 양록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사슴은 16만6천6백6두이며, 녹용 생산량은 3만6천2백96kg이다.

품종별로는 꽃사슴이 12만6천2백54두로 가장 많고 레드디어 2만1천3백34두, 엘크 1만9천18두 순이다.

## 정부정책

우리나라에선 녹용이 의약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유통되고 있다.

수입되는 녹용은 정부의 한약재 규격화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상·중·하로 나뉘어 유통된다.

반면 국산녹용은 축산물로 분류, 양록농가에서 채취하는 즉시 판매하거나 건조시켜 유통해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선전문구만 없으면 축산물로 인정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4년 6월9일 양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록업소가 채취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녹용의 단순세척, 건조, 절단작업은 의약품 제조행위가 아니라 축산물 가공 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데 따

른 것이다.

이 경우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 및 효능·효과 등의 표시기재나 선전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정책도 국내 양록농가의 숨통을 터주기엔 역부족이다. 값싼 외국산 녹용이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마구 국내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국산녹용이 설 곳을 잃고 있다.

정부가 국내 양록농가를 위해 펴고 있는 정책보다 외국산 녹용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집지키면서 뒷문을 열어 둔 꼴」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양록업계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더욱이 국내 양록농가를 불만스럽게 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국산품 이용이 가장 활발한 쪽이 농축산물 분야이면서도 녹용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과 정부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농협중앙회와 국산한약재 공급 계약을 맺고 회원들에 국산 한약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유독 녹용에 대해서 만큼은 국산품 사용을 꺼리고 있다.

복지부 역시 95년 3월 25일 제정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중 제4조에 수급조절한약재 조항을 두어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절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불거는 하지만 품목은 강활, 구기자, 질경, 당귀 등 29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에는 복지부 및 농림부 관계공무원과 한약재 생산단체 대표 4인, 각 관련단체 대표등 13명이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을 비롯 △수입하는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 △한약재 유통가격 조사 △국산한약재 수매알선 등의 조절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수급조절 한약재를 29종이나 선정한 것은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우선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며, 또

## 내·외산 녹용의 차이점 및 유통구조 실태

구분	국산 녹용	수입 녹용
녹용	사육하는 사슴에서 축산물로 생산한 천연상태의 뿔	사육하는 사슴에서 절취한 뿔을 판매협회에서 수매후 가공, 정제하여 약재로 수입 생뿔(비건조)은 연구용 또는 제약용으로 수입
생산목적	녹용의 내수자금	한국 수출목적
용도	축산물(건강식품)	한약재
적용법률	약사법 및 생약 규격집	약사법 및 생약 규격집
유통법률	농(축)산물	한약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
유통구조	농가생산 직매	수입후 가공(규격화)하여 한약업소에만 공급하며 실수요자는 한약방에서 약재로 구매
가격(kg당)	<생녹용> 도매(전지): 345,800원(양당13,000원) 소매(편질): 532,000원(양당25,000원)	<생녹용> 실험, 제약용으로 극소량 수입되나 시중판매용은 경제성이 없음
	<건녹용> 도매(전지): 1,037,400원(양당39,000원) 소매(편질): 1,596,000원(양당60,000원)	<건녹용> 수입가격: 266,000원(양당10,000원) 소매(약방): 2,660,000원(양당100,000원)
수급절차	농산물로 직거래	녹용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추천(신고) 받아 산지로부터 수입하여 감별위원회의 감별을 받아 통관후 전량 규격화(가공)하여 한약업소에 공급. 생녹용은 동물검역소에서 검역 통관받아 건조후 다시 녹용감별위의 감별을 거쳐 규격화하며 한약업소에 공급(감별후 특소세 부과)
상품보관	절차현장에서 판매못한 생녹용은 부패방지를 위해 냉동보관함	산지에서 상품으로 정제후 보관한 냉동 생녹용을 수입시는 동물검역 통관후 다시 건조하여 녹용 감별을 받아 시판할 수 있으며 이때 녹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정책방향	내·외산 녹용의 수급조절 실현 및 유통구조 개선	냉동 생녹용 수입판매는 국내 양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한 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단체 대표를 4명씩이나 포함시킨 것 역시 이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약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랄 수 있는 녹용에 대해서 만큼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자 양륙협회는 녹용을 수급조절 한약재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로 볼때 4천2백75만달러에 이르는 외산녹용 수입금액의 일부라도 국내양륙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양륙협회는 특히 외국에서 비싼값에 들여오는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매화, 깔깔이 모두 국내에서 기르는 엘크종 또는 꽃사슴으로 국산 녹용의 주류를 이루는 품종이라고 강조한다.

양륙협회는 또 국내산 사슴의 경우 대부분이 20년이상 국내에서 번식돼 이미 체질 등이 외국산 사슴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 우리 국민

의 몸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 최환영 회장은 이와 관련 『외국사슴이 국내에 반입됐어도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다면 이미 토착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동안 세대가 몇차례 이어졌고 이 땅에서 나는 나뭇잎, 풀 등의 사료, 기후조건 등을 생각할 때 모양은 외국사슴이라도 그 내면은 우리사슴으로 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우리나라 산삼씨앗을 미국땅에 심었더니 무처럼 자랐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그것을 우리 산삼이라고 애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 양륙업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대변했다.

녹용의 「신토불이」. 그것은 이제 정부가 효능을 검증하든, 국내양륙농가 보호정책을 펴든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